

특보 2015년 12월 2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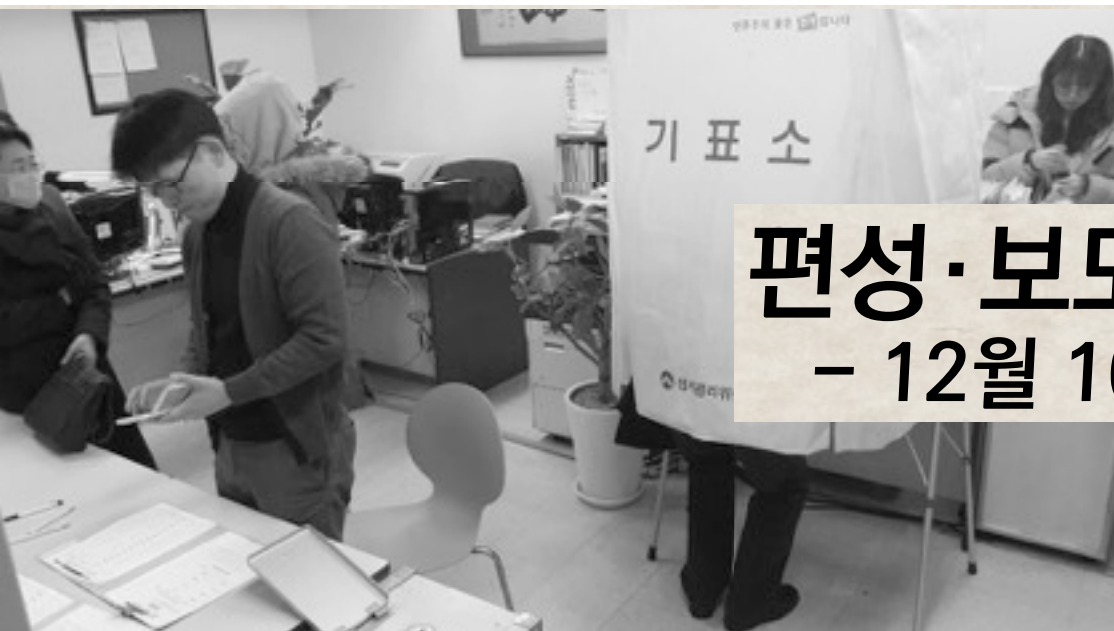
발행인 안성용 편집인 최경배

편집부 김다은 나경록 송정훈 신동진 여미영 이형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158-701) 전화 2650-7390~2 팩스 2650-7393

공방위특보

www.cbsunion.or.kr



공정방송을 위한 편성·보도국장 추천 투표!! - 12월 10일 전체 조합원 투표 -

차기 편성국장과 보도국장 후보자를 뽑는 '편성.보도국장 추천투표'가 오는 12월 10일(목) 치러진다. 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을 위해서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부재자투표도 실시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지방 또는 해외출장 및 휴가를 가야하는 조합원이 대상이다.

노사 공정방송협의회는 이미 합의한 선거일정에 따라 11월 30일 편성.보도국장 추천 1차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도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에는 구병수, 권혁주, 김규완, 성기명(가나다 순)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편성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에는 김동혁, 이광조, 이기운, 이덕우, 이명희(가나다 순) 후보가 올랐다.

보도국장 추천투표 1차 선거에는 선거권자 50명 가운데 4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0%를 보였다. 선관위는 '편성.보도국장 후보자 추천선거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1차 선거 후보자 8명 가운데 10% 이상을 득표한 4명의 후보를 2차 선거 후보자로 확정했다.

편성국장 추천투표 1차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 39명 가운데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8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역시 규정에 따라 10% 이상을 득표한 5명의 후보를 2차 투표 대상자로 정했다.

편성.보도국장 후보자가 압축됨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10일 전국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2차 투표를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는 선거 3일 전까지의 조합원 명부로 대신한다. 또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 조합원의 투표는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모든 조합원에게 보도국장과 편성국장을 추천선거에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보도국장 선거에 투표한 보도국 조합원 그리고 편성국장 선거에 투표한 편성국 조합원의 투표수에는 2를 곱하게 된다.

선거 개표는 11일 오전 중에 실시된다. 개표 결과 득표 순위에 따라 유효득표율 20% 이상을 얻은 후보 각 3인씩을 노동조합이 회사에 통보하게 된다. 단, 조합원 투표에서 유효득표율 20% 이상을 얻은 후보가 2인일 경우에는 2인을, 1인 이하일 경우 후보 자격을 노사가 협의해 2인 이내에서 결정한다. 노동조합은 2일의 소청 기간을 거쳐 12월 16일 회사에 후보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차기 편성.보도국장은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인사권자가 임명하게 된다.

보도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 후보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호봉호칭)	생년월일	입사일	입사부서	주요인사사항	사진
1	구병수 (具柄秀)	보도국	경제부장	65.11.03	92.04.01	보도국 기자	1992.04.01 보도국 기자 2006.01.12 마케팅정책부장 직무대행 2007.06.25 보도국 기자 2008.02.25 미국 LA, JBC(미주중앙방송) 2009.03.31 방송본부 보도국 기자(파견해제) 2009.06.23 춘천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2012.01.01 미디어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2014.02.14 콘텐츠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2015.06.29 콘텐츠본부 보도국 경제부 경제부장	
2	권혁주 (權赫周)	경인센터	경인센터장	66.01.10	91.04.01	청주기자	1991.04.01 청주방송 보도부 기자 1995.11.01 중앙방송 보도국 기자 2009.06.18 방송본부 보도국 영상뉴스부장 2010.05.17 미디어본부 보도국 노컷뉴스부장 2013.01.01 마케팅본부 마케팅3팀장 2014.02.14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장(직제개편) 2014.12.18 콘텐츠본부 경인센터장	
3	김규완 (金奎完)	보도국	선임기자 (국장대우)	64.06.20	90.05.01	보도국 기자	1990.05.01 보도국 기자 2006.03.16 문화체육부장 겸 노컷뉴스부장 2008.03.01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2009.01.12 방송본부 보도국 기자 2009.06.18 방송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2010.03.08 미디어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2011.04.06 미디어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2012.01.17 미디어본부 경인센터장(부장급) 2014.02.11 경영본부 교육문화센터장(국장급) 2015.06.22 콘텐츠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4	성기명 (成基明)	보도국	선임기자 (국장대우)	65.01.22	93.04.06	부산기자	1993.04.06 부산방송 보도국 기자 1999.05.20 중앙방송 보도국 기자 2009.06.18 방송본부 보도국 산업부장 2010.06.08 베이징특파원 2013.08.14 콘텐츠본부 보도국 기자(파견해제) 2013.10.07 콘텐츠본부 보도국 경제부장 2015.06.29 콘텐츠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보도국 후보자 정견문

구병수 보도국 경제부장

보도국의 막내가 되겠습니다!



작금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위정자의 불통을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정녕 소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교집합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선.후배간의 단절.부서간 칸막이.과연 터놓고 고민을 털어놓을 선.후배가 보도국에 몇 명이나 있나 돌아보십시오.이 시대의 화두인 소통을 저는 공유라고 생각합니다.가치와 생각,방향을 공유하는 것만이 보도국의 진정한 성장동력입니다.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냉소와 무관심,따돌림 등 우리가 진정 배격해야 할 정서가 보도국의 결속을 갉아먹고 있습니다.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좇느라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할 가치들이 훼손된다면 만사휴의일 뿐입니다.소통의 아이콘인 SNS는 이미 거대한 미디어 공룡이 되고 있습니다.뉴스 소비 행태가 이처럼 변화하고 있지만 소통과 공유의 부재로 보도국이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저는 기사를 대중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우리가 할 일은 벽에 창을 내는 일입니다.그것을 통해 세상을,진실을,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기에 보도국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고령화와 빈약한 콘텐츠,정체성의 혼란 등.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반도체가 되고자 합니다.단절과 배제에는 절연체가 되고 사랑과 나눔에는 도체가 되어 보도국에 따스하고 인간미 넘치는 전류가 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순식간에 세상을 뒤집어놓은 이 시대의 혁명은 두 가지였다고 식자들이 말합니다.마이크로칩과 벤처기업입니다.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발성의 발현으로 탄생했고.작지만 웅숭깊고 모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세상은 획일에서 다양성으로 통제에서 개방으로 다툼에서 상생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이런 혁신의 필수요건들을 내재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나가겠습니다. 보도역량의 집중과 영향력의 극대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합니다.

◆선임기자들의 지식과 경험은 보도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긴 호흡의 기획취재를 통한 기사 및 정보생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선임기자들에게 기사의 재가공과 배열 등 큐레이터의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포털과 SNS 플랫폼 사업자(페이스북, 구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출입처의 셀럽(의원, 보좌관, 공무원, 기업 홍보팀, 연예체육계 인사)과 폐친 맺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공기관, 기업과의 기획물 제작(ex)광복절 기획/하나은행)과 네이티브 광고를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늘 중용23장을 읊조립니다. 맞습니다. 영화 '역린'에 인용이 됐던 구절입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보도국의 막내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권혁주 경인센터 경인센터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보도국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조합원 및 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중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에도 도전한 권혁주입니다.

선거를 계기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 반갑습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말 노컷뉴스부장을 끝으로 보도국을 떠났다가 지난 주말 모처럼 보도국 MT에 다녀왔습니다. 보도국장 후보로 나서 얼굴알리기 차원도 있었지만 선후배들의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얘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행사 취지 자체가 한해를 돌아보며 보도국 구성원들 스스로 위로하는 자리였기에 다들 즐겁게 보여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노컷V에서 찍은 물대포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6백만건을 넘었고 YS 영결식장에서 벌벌 떠는 어린이 합창단 영상도 대박을 쳤다는 소식 너무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 대박영상을 터뜨린 촬영기자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5만명으로 늘리며 분투해온 SNS 팀에게 다만 얼마라도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야 SNS에 대한 보도국 전체의 관심과 일반 기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잘되면 많이 떨어진 노컷뉴스의 순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CBS 뉴스는 엄혹했던 독재, 군사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양심으로 또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꼭~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보도국 기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자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매체간 경쟁은 격화되고 일은 늘어나고 소통도 어렵고..

어쨌거나 좋은 기사를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역시 자칫하면 "뭐가 그렇게 힘든거야...우리때는 말야..." 하면서 자꾸 곧대처럼 얘기하려다 "맞어..기자도 좋은 시절 다갔어"라며 반성하기도 합니다.

땅이 좋아야 곡식이 잘 자라듯이 보도국장의 제일 큰 임무는 기자들이 즐겁게 또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감동이 있는 뉴스가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자들 얘기 열심히 듣고, 기사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동료의식이 더욱 회복되는 보도국 분위기 만들겠습니다. 때론 너무 오바하는 것 아니냐는 평을 들은 김진오 전 국장의 기사 열정, 김준옥 현 국장의 후배사랑과 아량을 제 스타일로 최적화시켜 보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보람차고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 또 데스크들과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보도국 구성원들간 동료의식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필벌 강화하되 상을 주는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sns 콘텐츠 개발 유통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자들이 만들었던 뉴스 발전방안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시도해보겠습니다.

◆숙직비와 세종시 출입기자들 교통비 상향 조정하고, 에그 사용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큰 사건 발생시 국내든 국외든 즉각적인 현장 취재 강화하겠습니다.



‘보도국장’이 아니라 ‘보도하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견문을 씁니다. 2년 전 보도국장에 나섰다가 낙선한 이후 스스로에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국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2년 간 한번 더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 노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 털기도 전에 여러분 앞에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곳은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똑 같이 필드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장기자입니다.

저는 ‘보도국장’이 목표가 아니라 ‘보도하는 국장’이 목표입니다. 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하고 내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것만 고민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진 생각이 ‘남과 다른 점’을 꼭 한가지만 갖자, 취재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딱 한가지만 더 알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남과 다른 꼭 한 가지 인상만 심어주자였습니다. 보도국장은 권위나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능으로 접근해야하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우리회사처럼 조직규모가 작으면서도 복잡한 구조에서는 기능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최우선의 가치는 콘텐츠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판단해주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필드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데스크 생활이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기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점은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저 혼자 뛰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선배들에게 기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시고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드에서 익힌 경험과 통찰력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인사와 조직을 운영할 것입니다. 출입처 인사를 현장강화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단행할 것입니다. 내근자와 외근자의 업무를 분장해 현장기자의 취재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겠습니다. 또 선임기자들의 역할과 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신나게 함께 일하는 보도국을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부장 데스크회의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CBS다운, 기자다운, 보도국장다운 언론사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쟁력은 잠재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국은 물론 타 콘텐츠 생산부서와의 콜라보 등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쌓인 경쟁력이 중앙 보도국과 결합되지 못해 그만큼 열효율이 떨어진 채로 엔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국은 우리 전체 보도국의 절반입니다. 각 지역국이 CBS 콘텐츠 생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동행할 생각입니다. 또, 편성국과 티비국의 보석같은 콘텐츠를 보도국을 통해 효율을 폭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플랫폼에 대한 고민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뒤늦게 걸음마를 댄 SNS와 정체상태에 빠진 노컷뉴스에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콘텐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과감한 결단과 방향제시로 우리의 독창성을 찾아가겠습니다.

잘 놀고 기사도 잘 쓰는 보도국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농담과 질책도 야마있게 주고받는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이끌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공유하고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로부터 지혜를 얻어 실천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여러분과 함께 항상 어울리고자합니다. 제 품과 여러분의 품을 함께 열고 다시 한번 같이 펼쳐들어갑시다. 저는 ‘보도국장’이 아니라 ‘보도하는 국장’이 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부질없는 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듭니다.

CBS보도국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런 저런 2류언론으로 고착화돼가고 있진 않습니까? 뉴스의 현장은 매일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는 최전선입니다. 보도국은 종합상황실이고 보도국장은 상황실장이자 뉴스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시시각각 현장의 움직임이 접수되고 순간순간 신속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이 우선입니다. 지금 CBS 보도국을 돌아보십시오? 열정이 보입니까? ‘뉴스’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CBS 보도국에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시의적절하고 소프트한 기획이 갖는 매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특종’입니다. 우리의 특종만이 세상과 역사를 바꿉니다. 특종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옵니다. CBS는 강한 언론이었습니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지만 스트레이트 특종이 강한, 힘있는 언론이었습니다. 노컷이 없던 시절에도 수많은 타사기자들과 취재원들을 CBS라디오 뉴스 앞으로 모이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더 이상 플랫폼의 한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CBS 정신은 현장에서 기사로 표출돼야 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콘텐츠입니다. 강하고 힘있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CBS 보도국과 보도국장에게 다른 일은 그 다음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막혀있는 변화의 물꼬를 다시 터야합니다. CBS 보도국의 변화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가능한 모두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달릴 순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CBS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합니다.

- ▶ 라디오 리포트 갯수 맞추기 ‘이제 그만’- 편집회의 방식 변화

▶ 백화점식 나열도 ‘그만’

-디테일을 알아야 선택과 집중이 나옵니다.

▶ ‘일’ 앞에선 선후배가 따로 없습니다.

▶ 기자도 경력관리가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예상가능한 인사 정착 -

▶ 인력수급의 장기 플랜

▶ 중앙국과 지역국은 별개? -CBS 하나되기 프로젝트

▶ 연공 서열은 없습니다.

▶ 수당현실화 -야근수당 3만원은 기자들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 뉴미디어는 대세 -텍스트보다 동영상·사진·만화·카드뉴스, 기술인력 확충
- ▶ 기자 재교육- 연수와 교육의 문을 넓히겠습니다.

▶ 전문성 확보 프로젝트-출입처의 잦은 교체부터 바꾸겠습니다.

▶ 부국장제 도입- 뉴미디어 담당, 지역 및 편집 총괄 담당 1~2명의 부국장

▶ CBS뉴스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 케이블·버스광고 등에 돈을 들이겠습니다.

▶ 대외활동 보폭 확대 - 포털과 SNS 등

뉴스 영향력 증대 위한 접촉 확대

▶ BOOM-UP - 플러스 인센티브

▶ 정보보고 활성화 – 언론은 정보를 먹고 삽니다.

정보유출 차단 위한 뉴스룸 기능 개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CBS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더 오래 해주십시오. 불평과 비아냥거림 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국장 추천투표 2차 선거 후보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호봉호칭)	생년월일	입사일	입사부서	주요인사사항	사진
1	김동혁 (金東赫)	편성국	프로듀서 (국장대우)	62.10.19	90.05.01	청주 프로듀서	1990.05.01 청주방송 방송부 PD 1998.11.02 대전방송 PD 2000.12.26 대전방송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2001.08.17 편성제작국 PD 2002.02.17 대전방송 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2003.04.24 편성제작국 PD(차장) 2008.03.17 영동방송 보도제작국 PD(파견1년) 2009.03.17 대전방송 보도제작국 PD 2010.12.27 미디어본부 편성국 프로듀서 2011.10.24 경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2013.10.07 콘텐츠본부 편성국 프로듀서	
2	이광조 (李廣朝)	편성국	시사교양제 작부장	67.03.01	96.01.01	편성국 프로듀서	1996.01.01 편성제작국 제작부방송요원 1998.08.01 편성제작국 제작부 PD 2009.01.01 편성제작국 편성부 PD 2011.01.01 편성제작국 시사교양제작부 PD 2013.04.29 편성제작국 편성부 PD 2014.02.14 콘텐츠본부 편성국 시사교양제작부장	
3	이기운 (李起雲)	편성국	프로듀서 (국장대우)	63.01.13	90.05.01	편성국 프로듀서	1990.05.01 편성국 프로듀서 1995.07.01 춘천방송 프로듀서 1995.10.12 편성제작국 프로듀서(파견해제) 1998.02.02 보도국 파견(~99.03.09) 2006.10.16 편성국 제작부장 2008.03.01 편성국 편성부장 2008.07.07 방송본부 편성국 부국장(편성부장) 2009.06.18 울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 편성팀장 2010.10.07 미디어본부 편성국 프로듀서	
4	이덕우 (李惠雨)	편성국	예능제작부 장	67.07.23	94.04.18	전북 프로듀서	1994.04.18 편성국 PD 1999.09.21 인터넷팀 파견 2000.02. 01 파견해제 (편성제작국 PD) 2003.07.21 노조사무국장 2005.01.01 편성국 FM부 프로듀서 2010.03.08 미디어본부 편성국 시사교양제작부장 2012.03.12 미디어본부 편성국 프로듀서 2015.06.29 콘텐츠본부 편성국 예능제작부 예능제작 부장	
5	이명희 (李明姬)	편성국	아나운서 (국장대우)	68.10.26	90.05.01	편성국 아나운서	1990.05.01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1995.02.15 파견 (부산방송 아나운서) 1995.02.20 파견해제 (편성국 아나운서) 2006.01.12 아나운서부장직대 2006.10.16 아나운서부장 2009.01.12 방송본부 아나운서부 아나운서	

편성국 후보자 정견문



김동혁 편성국 프로듀서

안녕하십니까? 편성국장 선거에 나선 김동혁PD입니다.

서울 편성국과 13개 지역에는 100여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별이 되지는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별이라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난 별이 아냐'라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별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입니다. 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CBS도 지금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편성국도 많은 고민 끝에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만큼 편성국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편성국장 후보로서 헌신과 소통, 그리고 화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단과 편성국 '별'들에게도 헌신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표준FM이 많은 고민 끝에 시사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로 변신했고 한국교회를 위한 'JOY 4 YOU' 채널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이 보다 구체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끊임없이 보완책을 연구하고 고민해 가겠습니다.

둘째, 제가 먼저 <소통>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편부터 시작해 편성국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편성국, 그리고 지역국 모든 '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헌신하게될 부장단 구성도 부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국과의 소통 기회도 더욱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국과 지역국 50여명의 아나운서와 프로듀서들이 함께 하는 정기적인 모임 (가칭 '은하수')을 상시화 하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제가 먼저 <화합>하겠습니다. 편성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아나운서와 PD, 작가 그리고 리포터 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만큼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국장이 된다면 모든 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더욱 화목한 편성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편성국 식구들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민까지도 제가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

별의 무리가 은하수입니다. 피디와 아나운서, 서울과 지역의 모든 별들이 모여 은하수처럼 아름답게 조화되는 편성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광조 편성국 시사교양제작부장 자긍심과 보람, 공정함과 배려



자긍심과 보람, 공정함과 배려. 20년 가까운 피디 생활동안 조직과 방송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제 나름대로 깨닫게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제가 편성국장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싶은 목표임과 동시에 그것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CBS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방송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동료, 후배들의 노력으로 음악FM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업계에서만 알아주는 방송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방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FM이 어느 정도 성장만 해준다면 명실상부 라디오의 명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개편으로 표준FM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피디, 아나운서, 작가, 진행자, 리포터 등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과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작인력, 제작비 등 제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습니다.
- 업무의 특성과 노동 강도에 따라 그제 걸 맞는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 피디, 아나운서들의 경력관리를 보다 공정하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 휴가가 말 그대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내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재교육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장기기획과 특집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즐겁게 일한다면 청취율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배려하면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편성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편성국장 도전입니다.



후배들 격려하고 선배들과 소통하면서 창의력과 활력이 넘치는 편성국을 만들겠습니다. 결정에 책임지는 진정성과 실천력을 갖춘 편성국장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취율이 지상과제입니다. 경제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취율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번 가을개편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시사와 음악에 단순화해서 집중한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작업을 통해서 청취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취약시간대에 우리 업무역량이 허락하는 한 인문/다큐 등의 의미있는 프로그램도 편성하겠습니다.

둘째, CBS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BS는 구성원들이 무형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올바른 정신은 작지만 무서운 폭발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사, 음악프로그램에 이 정신이 녹아나오도록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셋째, 후배 PD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캐리어 관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력표를 만들어서 개별이력을 관리하겠습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서 희망하는 분야를 파악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강도 조정을 위해서 뉴스쇼에 한 명을 더 지원해서 월수금 / 오전 오후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방송의 얼굴인 아나운서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깊이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를 섬기면서 듣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나운서와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습니다.

다섯째, 후배 여러분들도 곧 선배가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 온 일터에서 선배들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배 여러분들 등 두드리며 격려하는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역량과 도전정신의 후배와 경험을 갖춘 선배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인간 소외는 없어야 합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CBS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선후배 동료 여러분의 애정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편성국장 투표에 임하는 몇 가지 정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정하고 정의로운 CBS

방송환경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면서 경영의 논리에 의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CBS 정신이 실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현업자들과 함께 단호하고 지혜롭게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 라디오 청취율 제고(提高)

현재 음악FM은 14%대의 높은 청취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표준FM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청취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표준FM은 지난 가을개편을 통해 큰 폭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중장년층 대상의 음악프로그램으로 채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안착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개편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시간대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청취율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활성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청취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설교 프로그램을 들을 때는 설교자와 해당교회 정도의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고 시사 대담에서도 출연자의 이름과 주제 정도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와 이를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 인력 충원도 검토하겠습니다.

4. 선교 프로그램 활성화

라디오 선교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TFT를 설치하고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라디오 선교프로그램은 충분한 제작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해 크리스천들로부터 사랑받는 선교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5. 노동정의 실현

현재 편성국 구성원 간에는 '노동정의'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묵묵히 일 잘하는 PD들은 '뉴스쇼'처럼 힘든 프로그램의 늪에서 허우적 대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면 쉬운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입니다. 업무량 분석과 경력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노동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6. 지역국과의 프로그램 교류

Joy4U에 지역국에서 제작하는 찬양 프로그램을 결합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국과 지역국 간의 프로그램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명으로 고립돼 있는 지역국의 PD, 아나운서 등의 교육, 훈련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 우수직원 포상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내거나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보상과 포상을 강구하겠습니다.

CBS에 입사한 지 만 2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 자신의 사욕을 위해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CBS의 정신을 세우고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편성국장의 자리가 허락된다면 그 자리를 발판 삼아 더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단지 PD인생의 마지막 보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편성국 아나운서

낮설고 설립니다. 편성국 국장후보로 나선 이명희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낮설고 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성국의 국장 후보로 나선 이명희입니다.

방송이 좋아서, CBS의 울곧음이 좋아서, 감사하게도 택함을 받아 CBS 사람이 된지 26년이 넘었습니다. 그사이 사회도 언론 환경도 많이 변했지만 요즘처럼 언론이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빠른 언론 환경의 변화로 CBS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지금 이시기에 언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CBS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C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편성국의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그동안 CBS를 사랑하고 방송을 사랑하는 편성국원들이 쏟아왔던 열정이 더욱 이 땅에 참된 방송으로 CBS를 듣는 이들에게 참 기쁨이 되도록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음악FM의 프로그램들은 좋은 음악 탄탄한 진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태어난 JOY4U는 방송의 지평이 다양해진 가운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도 CBS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BS의 표준 FM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이나 상상이 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편성국이 되도록 소통의 장이 열려있는 편성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피디, 아나운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적절한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본인의 희망사항을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업무배당을 정리해서 이후 배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체 교육에 치우쳐 있는 회사의 교육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개인의 전문성을 재교육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워 'CBS'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직원회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글들 중에 유독 제 눈에 아프게 와 닿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리 천장이 높다'...

모 선배님처럼 끝까지 CBS의 마이크를 놓지 않고 싶은 욕심이 큼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웃고 우는 시간들이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사람이 맡아야 할 역할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게 마련이죠. 어느새 훌쩍 선배가 되고 보니 후배들이 바라볼 선배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 간부가 거의 없는 회사. 이는 CBS에 몸담고 있는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에 기꺼이 나서야 함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도 인지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CBS 이기에 후배들이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선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섭니다.